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요한복음 15:9~17

【인도자를 위한 예화】

베서니 해밀턴(Bethany Hamilton, 1990~현재)은 하와이 출신 외팔이 서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서핑 실력으로 미래의 프로 서퍼로 촉망받았으나, 서핑 연습 도중 갑작스러운 상어의 공격으로 왼팔 어깨 아래쪽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서핑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서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는 쓰나미로 부모를 잃고 바다를 두려워하게 된 한 아이를 만납니다. 베서니는 자신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서핑을 시작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서핑에 복귀한 그녀는 2004년 1월 대회에 출전하여 컴백상에 선정되고, 2005년 전국학생서핑협회의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배경 이해하기】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14~16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인 고별 설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본문입니다. 특별히 15장 비유적 표현은 이미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노래하는 이사야의 기록이나(사 5:1~7), 예레미야의 기록(렘 2:21), 에스겔 15장과 17장에 기록된 포도나무 비유 등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 비유하심으로 참된 영적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들도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관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보여 주신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성도들도 행할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요?(10, 12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하루 전,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한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으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앞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계명’과도(13:34)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 4:8)고 기록된 말씀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즉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지 다툼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눅 22:24~34)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

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라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 주신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과 나눔 I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려면 어떤 노력과 기도가 필요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21:3).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들의 주린 배를 걱정하시며 조반을 손수 만들어 주십니다(21:12). 그리고 베드로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시며 당신의 어린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전하십니다(21:15~18). 한 번쯤은 묻고 따져볼 만도 한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또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호칭하셨나요?(13~1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3절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기서의 친구의 원어적 의미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나아가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희생한다면 친구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대화를 나눈 그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희생의 사랑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만을 친구로 제한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까지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롬 5:6)까지도 친구로 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II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나누어 보세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포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 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수많은 순교자와 선교사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은 ‘계명의 실천’입니다. 실천은 말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랑보다 훨씬 중요한 순종이며,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실제로 행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